서평

김홍미리 | 이런 나, 페미니스트여도 될까?

- 록산 게이 『나쁜 페미니스트』(사이행성, 2016) / 치마만다 응고지 아다치에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창비,2016)

이런 나, 페미니스트여도 될까?

: 록산 게이 『나쁜 페미니스트』(사이행성, 2016) /

치마만다 응고지 아다치에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창비, 2016)

김홍미리*

일여 년 전 '페미니스트'는 검색어 1순위에 올랐다.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IS가 좋다'라는 김군의 메모 덕분이다. 김군 덕분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가 "여성을 숭배하는 사람, 또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세간에 알려졌다.[1] 곧이어 컬럼리스트 김태훈이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라는 컬럼을 한 패션잡지에 기고하면서 페미니즘의 '의문의 1패'는 계속된다.[2]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페미니즘 서적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말이다.[3] '페미니즘'이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연유를 사람들은 궁금해했던 것

---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1)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페미니즘' 및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바르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립국어원은 여성단체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는 두 번째 항목을 삭제하지 않았다. 2016년 4월 20일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페미니스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여성단체의 수정요구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립국어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 참조. 중앙일보 2015. 06. 19. 페미니스트 뜻은 '여성에 친절한 남자' 국립국어원 '바뀐 뜻풀이'에도 그대로.

2) 김태훈의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 기사는 2015년 2월에 <그라치아>에 실렸다. 현재 해당 기사는 온라인 상에서 삭제되었고 <그라치아>의 사과문이 2015년 3월호에 실렸다. 아래 링크 참조.
http://www.smlounge.co.kr/grazia/article/18396

같다. 페미니즘이 뭐길래 뭇 사람들이 그렇게 손쉽게 페미니즘의 역사를 삭제하고, 맥락을 끊어내고, 개념을 왜곡하며, 편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다. 2015년에 레베카 솔닛이 "맨스플레인"이라는 말로 그 궁금함의 일부를 해소해주었다면(페미니스트에게 '페미니즘은 그런 게 아니란다'고 가르치는 MAN's 습관에 대하여), 2016년에는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와 록산 게이가 '페미니스트'를 틀 지우려는 오래 묵은 시도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한다. 록산 게이는 '페미니스트이다-아니다'라는 틀에 연연하면서 페미니스트 자격을 끊임없이 묻기보다 '모자란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면 된다고 토닥인다. 아디치에는 108년 전 미국의 여성섬유노동자 2만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빵과 장미를 요구하며 '우리는 남자를 위해서도 싸우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미니즘은 (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준다.

'*네가* 그러고도 페미니스트야?'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까지, 너도 나도 페미니스트를 벽장 속에 가두는 일이 흔하게 있어왔다. 페미니스트를 고체화하는 일에는 국경도 없고 내외부도 없었다. 마치 열반(涅槃)이라도 해야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같은 완벽한 조각상이 되라고 요구하고-요구받았다. 그런 시간 속에서 게이와 아디치에의 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 페미니스트는 액자 속 그림도, 완벽한 동상도, 인증이 필요한 자격증도 아니라고, 페미니스트는 권력에 저항하면서 좌충우돌하는 숨 쉬는 사람에 다름 아니라고 말이다.

"그래, 나 성전환 했다": 나를 떨게 하는 글쓰기

지난 3월 앤디 워쇼스키 감독이 릴리 워쇼스키 감독이 됐다는 기사가

3) 중앙일보 2015. 02. 25. IS 때문에 페미니즘 서적 판매가 늘어, http://news.joins.com/article/17221818(검색일 2016. 04. 20).

올라왔다. 릴리는 『윈디 시티 타임즈 *Windy City Times*』에 서한을 보내 아웃팅의 위협과 가족의 응원, 그리고 0과 1사이의 무한과도 같은 자신의 젠더-전환에 이야기했다.[4] 그의 말대로 본인의 젠더전환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공격의 무기가 되는 세계에서 '낙관주의자'가 되는 일은 참 어려웠을 테고, '이미 의미의 복잡성을 상실한' '전환 trans'이라는 말로만 그의 젠더-바꾸기를 설명해야하는 일도 참 갑갑했을 거다. 더군다나 곱게 이해해줄 마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젠더이분법을 잘못된 우상(false idol)이라 콕 집어 이야기하고, "나는(the reality)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남성과 여성 사이의 무한을 오고가는 과정 속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그가 그런 부담을 짊어지기로 결정한 덕분에 누군가들은 가벼워 질 수 있었다. '그래 나 성전환했다 그게 뭐?'라는 말을 릴리의 호흡에 맞춰(텍스트에서나마) 청량감 있게 읊을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한편으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야 하는 일은 늘 안타깝기도 하다. 어떤 존재는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흠뻑 세계와 통합되어 살아가지만, 어떤 존재들은 꾸준히 설명을 요구받고, 잘 설명해도 또 질문 받으며, 꾸준히 답해도 꾸준히 욕먹기 때문에 그렇다. 릴리에겐 트렌스젠더라는 정체성이 그렇고 나에겐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이 그렇다. 응답해도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타인에게 내 정체성을 설명하는 일은 가능한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더욱이 '나를' 설명하는 일에서 그 답의 맞고 틀리고를 '네가' 결정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나를 설명하는 데 정답을 네가 앎?'

이런 구도를 나는 권력관계라고 부른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주로 질문

4)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 03. 09. 강병진, 트랜스젠더로 산다는 것에 대한 릴리 워쇼스키 감독의 글(전문), http://www.huffingtonpost.kr/2016/03/09/story_n_9414818.html (검색일: 2016. 04. 20). (원문출처: *Windy City Times* 2016. 03. 08, Tracy Baim, Second Wachowski filmmaker sibling comes out as trans, http://www.windycitymediagroup.com/lgbt/Second-Wachowski-filmmaker-sibling-comes-out-as-trans-/54509.html(검색일: 2016. 04. 20).

을 하고, 답하는 이는 주로 질문을 받는다. 평가받고 진단받는 위치에 서는 일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때가 많아서 처음에는 질문에 차근히 답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유하는 인간'은 질문이 늘 내게로(만) 향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상황을 줌-아웃 해보기 시작한다. "그나저나 그렇게 묻는 너님은 대체 누구시길래?"라고 말이다. 질문의 방향을 바꾸고 상대에게 거꾸로 묻는 일은 그때서야 가능해진다. "그래, 나 성전환 했다", "그래, 나 페미니스트다", "그래, 나 뚱뚱하다", "그래, 나 백수다", "그런데 그게 뭐?! 나는 그렇게 묻는 네가 더 궁금하다."

말하는 방향과 말해야 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건 바로 이때쯤이 아닌가 싶다. 내가 (나로) 사는 일이 불특정 다수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쪽의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기도 하지만, 그게 '말하기'를 멈춘다는 뜻은 아니다. 꾸준히 질문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하기를 멈추는 일은 존재의 흔적을 없애고 '살기'를 멈추는 일과 다르지 않다. 영화 <암살>에서 안윤옥이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듯이. 이런 이야기는 타인에게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처지에 있을 사람들을 기억하며 써내려간 것들이다.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그들이 망각한 부정의에 대해 말하고, 변화는 이미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다. 불안함 속에서도 낙관주의를 품은 퀴어로써 아직 오지 않은 '다른 세상의 잠재적 본보기'로 살 것이라 말하면서, 릴리는 그 길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아디치에는 자신을 억지로 변형시키면서까지 내가 가치있는 '여자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알려주며. 록산 게이는 이것저것 다해봤는데 그래도 페미니스트가 아예 아닌 것보다는 모자란(bad) 페미니스트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전해준다.

난해하고 복잡한 이야기들을 어쩌면 이렇게도 쉽고, 재미나고, 알차게 나에게 전송할 수 있을까. 그 난해하고 복잡한 퀴어 이론이 릴리의 존재와 릴리의 두 장 짜리 편지만으로 대번에 이해된다면 과장일 수도 있겠

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퀴어에 관해서 '나는 트렌스젠더이고 앞으로도 평생 계속 전환할 것'이라는 것[5]을 이해하는 것 말고 내가 더 알아야할 것이 있을까. 트렌스젠더가 욕망하는 '그 젠더'의 형상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 했던 이들에게 '젠더는 0과 1사이의 무한변주인걸?'이라는 말만큼 젠더를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말이 있을까? 적어도 지금 내가 치장하고 있는 '이 젠더'의 형상을 궁금하게 하는 데에 이보다 더 나를 '자극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를 자극하고, 나를 움직이는 이런 류의 글은 흔하지 않다. (그의) 글과 (내) 몸을 연결하는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작가는 글과 자신의 거리를 남겨두고 싶어 하고 독자도 그 편이 편하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글은 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나의 무엇도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설명문과 논설문들이 그렇다. 쏟아지는 논문과 논평들은 활자와 내 눈 사이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알아야할 정보와 지식들이 들어있고 나는 그곳에서 정보를 얻지만 그건 살갗을 파고드는 일보다는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일에 기여한다. 페미니즘을 다루는 많은 설명문과 논설문들 사이에서 보석처럼 발견하는 글이 있는데, 나에겐 워쇼스키의 커밍아웃 서한이 그랬고,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가 그랬다. 책의 추천사에서 정희진이 말했듯이 록산 게이의 글에는 타자 the others가 없다. '나쁜 페미니스트' 하기로 한 게이 자신의 풀 스토리여서 그럴 수 있지만, 당사자라 하더라도 껍데기로 한껏 치장한 글들이 차고 넘치는 걸 보면 타자를 배치하

5) "그렇지만 '트랜스젠더'와 '전환'이라는 단어는 나로서는 힘들다. 두 단어 모두 주류에 흡수되며 복잡한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의 뉘앙스가 없다. 트랜스젠더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독단적인 두 종착점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리고 '전환'은 한 종착점에서 다른 종착점으로 순식간에 옮겨갔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나의 현실은, 나는 계속 전환을 해왔고 앞으로도 평생 계속 전환을 할 것이다. 0과 1 사이의 무한과도 같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무한을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양분법의 단순함 이상으로 대화를 끌어올려야 한다. 양분법은 잘못된 우상이다(릴리 워쇼스키, 2016)"

지 않는 일이 누구나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번역서 말고 '한글체'로 웃긴데 반성적이고, 슬픈데 희망 돋는' 책을 만날 수 있을까? 그만큼 이 책은 나를 떨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독보적인' 책이다.

'대체 당신은 왜 뚱뚱한 거요?': 비루한 페미니스트의 성찰에 대하여

> ... 가끔 대담한 사람들, 혹은 무신경한 사람들이 내게 와서 어쩌다가 그렇게 뚱뚱해졌냐고 묻는다. 대체 왜를 알아야 한다. "당신은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비만의 유일한 이유는 멍청함이란 말인가? (록산 게이, 2016:108)

록산 게이의 책은 곳곳에서 웃음이 나지만, <뚱뚱한 사람이 사는 법>은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많이 웃었던 부분이다. 대체 당신은 왜 뚱뚱하냐는 질문을 보며 속으로 읊조린다. '그러게. 나는 대체 왜 뚱뚱한 걸까.' 내가 나에게 답하려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내 딸이 앞으로 받을 질문이기도 하다. 뚱뚱하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책에서 (당신의) 뚱뚱함을 허락하기 위해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쩜 너무 웃기다, 이 사람들. 뚱뚱한데 이유가 있어야 한 대, 하하하' 라고 비웃는 중에, 나는 기억해내고야 만다. 바로 얼마 전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올해로 20년차 페미니스트인 나도 '무슨 일 있대?'라고 그 뚱뚱해진 분의 지인에게 물었었다. 면전에서 대놓고는 물어보지 못하고 그의 지인에게 물어보는 이런 '조심스런' 무감각이라니. 이런 모자란 페미니스트라니!

록산 게이의 책은 두껍지만 장르를 넘나드는 글재료와 그것을 다루는 글솜씨에 독자로서 지루할 틈이 없다. 그가 헐리웃 영화나 미드(미국드라마), 소설, 미국의 인기 힙합가수의 노래나 유명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토

크쇼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그게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더 쓰는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쏠쏠한 재미를 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책의 '핵잼'은 이렇게 책에 흠뻑 빠져들면서도 결코 '남 이야기 읽듯' 바라볼 수 없다는 데에서 온다. 비단 이것이 개인의 경험이나 취향 이야기가 아니고, 바다 건너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며, 과거 다 지나간 옛 이야기이거나 선진국형(?) 미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다. 실컷 웃다가 '그 사람이 뚱뚱해진 이유'를 궁금해하던 내 모습이 떠오른 것처럼, 이 책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상황 속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같이 흉보고 욕해도 되는 부담 없는 초대에 편안히 응한 내가 재미난 한바탕 수다 속에서 나의 남루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식이다. 내가 비판해 마지않는 '그런' 세계와 내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짐작하게 하고,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독려한다. '비난'이나 '나무람'이나 '충고'없이 일어난 배움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거다.

'채우기 위해 비울 수 있는 용기'[6]는 청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청년이 아니라도 빼곡히 들어찬 것들을 비워내야 그 여백 안에서 흔들릴 수 있고, 그 흔들림 속에서 타인을 초대할 수 있다. 게이가 나에게 알려준 것은 다행히도 나는 무언가로 꽉 들어차지 않았다는 것과 그래서 흔들린다는 것, 흔들려도 될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게 옳다는 것, 그리고 흔들려서 다행이라는 사실이다.

통째로 흔들릴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아디치에의 책을 읽어도 좋겠다. 이 책의 내용은 비교적 평이하다. 하지만 이 책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읽기는 쉽지 않다. 제3세계에 살면서도 아프리카, 이슬람, 인도 페미니즘을 타자화시키는데 익숙한 나는 아프리카 여성을 타자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글을 읽는 데에 적잖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태초부터 들었던 '한국페미니즘은 서구중심적'이라는 비판

6) 민중가요 '청년'의 가사 (작사/곡 김이원)

과, 응고지가 소설가가 된 직후부터 들었다던 '페미니즘은 비(非) 아프리카적'이라는 조언은 성평등의 당위를 훼손하려는 만국공통의 전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식의 진단과 평가가 엉터리라고 해서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아프리카 '출신' 페미니스트가 '아프리카 페미니즘'으로 분류되지 않고 접두사 뗀 '페미니즘'의 대표값으로 회자된다는 건 중대한 변화다. 비백인 여성 저자가 접두사 없이 그냥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일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 거다. 동아프리카 최초로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은 왕가리 마타이의 저서가 국내에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그는 페미니스트이기 보다는 '아프리카' 여성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평화운동가'로 소개된다. 십년도 전에 와리스 디리는 여성인권에 대해 한권의 책을 썼다. 그리고 책의 제목 -<사막의 꽃>-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그 책을 페미니즘 기본서로 부를 마음이 없었다.[7] 와리스 디리는 소말리아 유목민 여성에서 세계적인 슈퍼모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때 우리는 여성할례(여성성기훼손 FGM, Female Genital Mutilation)를 자행하는 미개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여성문제로 취급하는 것 외에 아프리카 여성의 삶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던 한국에서 아디치에의 책은 '다정하고 유쾌한 21세기 페미니스트 선언'으로 홍보되고(21세기 '아프리카' 페미니즘이 아니라!) 출간 두 달 만에 1만부가 팔렸다.[8] 어쩌면 우린 익숙하지 않은 이름형태('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로 출신지역을 가늠하고 그에 따라 대표인지 부분인지를 가늠하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고보면 아프리카 페미니스트 블로그 '미즈 아프로폴리탄(Ms Afropolitan)'의 운영자 민나 살라비의 말대로 스웨덴이 아디치에의 책을 16세 이상 청소

7) 한국에는 2005년에 소개됐다. 와리스 디리, 이다희 옮김, 『사막의 꽃』, 섬앤섬, 2005.
8) 국민일보 2016. 03. 11. [책과 길] 남녀평등? 그것은 착각 ! 남성 그늘 벗어나려면 어설픈 페미니스트라도 돼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56620&code=13150000&cp=nv(검색일 2016. 04. 20)

년 모두에게 배포하도록 한 결정은 글로벌 페미니즘을 위한 중대한 사건임이 분명하다.[9)]

하지만 그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아디치에의 책에서 '아프리카'라는 수식어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을 읽는 내내 저자의 출신지역에 대해 의식했던 것 같다. '아하, 아프리카는 그렇구나, 우리나라 80년대 같네' 와 같은 식으로 생각이 옹졸하게 연결됐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차이를 존중하고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나는 페미니스트 '답지 않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몸에 덕지덕지 들러붙어있는 오리엔탈리즘은 그렇게 또 한번 증명됐다. '그럼 이런 비루한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 록산 게이가 재빨리 응답했다.

"조금 모자란 페미니스트 하면 된다"라고.

'아무리 열심히 피하려 노력해도 표적이 되지 않을 방도는 없다'

> (미국과 나이지리아 각 나라 여성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입니까?) 미국여성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생식권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이지리아에서는 주로 문화적 문제입니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2016: 78)

덕지덕지 붙은 편견을 떼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아디치에의 책을 다시 집어 들었다. 국가 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일에 국가라는 경계가 사소해진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아디치에의 말대로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여자들에게 정착하라고 가르치고 고마워하라고 가르친다'. 여자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허락한 후, 그 경계 밖의 것들을 욕망하는 일을 금지시키고, 금지선을 넘을 때 맹렬히 비난하는 패턴도 똑같다. '야

9) 여성신문 2015 12. 17. 페미니즘에도 글로벌 시각 가져야 http://www.womennews.co.kr/news/89556#.VyW_jTB9603(검색일, 2015. 04. 20).

망을 품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크게 품으면 안돼(아디치에, 2016:31)’라고 하는 것도, 똑똑한 여성에게 느끼는 두려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남자는 두려움, 나약함, 결점을 내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남자들이 강간을 유머랍시고 떠들면서도 반성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일도 국경을 따지지 않았다.

미국 코미디언 다니엘 토쉬의 ‘강간유머’와, 강간 유머에 웃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향한다는 ‘예민하다’는 딱지는 장동민표 개그를 둘러싼 한국의 반응과 흡사하다. 장동민이 더 나은 개그맨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변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상실했듯이, 저항 받지 않는 토쉬는 ‘강간’을 소재삼아 꾸준히 ‘유머’를 하신다. 2015년 옹꾸라의 여성비하 발언이 있었을 때에 김수미는 “정말 하차할 큰 실수를 하기 전에 이번일이 터진 게 잘된 일”이라며 장동민을 감쌌다.[10] 덕분에 성찰의 기회를 상실한 장동민은 2016년에도 한부모 비하와 어린이 성폭력 재현 ‘개그’로 컴백하셨다. 그리고 당분간 그의 소수자 비하 개그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그를 성찰을 막는 든든한 대중과 그가 여론에 몰려 ‘성찰’이라도 해버려서 자칫 개그소재가 고갈되면 어쩔까 걱정하는 모 평론가들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11] 한편, 미국에 힙합 뮤지션 타일러 더 크리에이

10) 장동민의 실수를 사소한 일로 만드는 김수미를 보면서 나는 그가 ‘옹달샘과 꿈꾸라’ 팟캐스트(이하 옹꾸라) 49회 방송을 듣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2013년 옹꾸라 49회에서 장동민은 코디와 있던 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망치로 대가리를 치고 싶다. 만날 핸드폰 만지는데 망치로 핸드폰 부시고 싶다. 창자를 꺼내 구운 다음에 그 엄마에게 택배로 보내버리고 싶다”. 같은 회에서 유상무, 유세윤, 장동민은 “개같은 년”을 합창하고 장동민은 “개보년”을 외쳤다. 기사에 있는 그대로 욕설을 적을 수는 없지만 신문과 방송은 장동민의 이 말들을 보도했었다. 김수미가 방송을 직접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동민의 언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관련 영상은 대부분 삭제됐다. 현재 청취가능한 옹꾸라 49회 방송 주소는 http://dailymotionfile.com/v_x2mr8du). ‘정말 하차할 큰 실수하기 전에’ 잘 터졌다고 말한 사건은 이런 것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하게 된다. 정말 하차할 큰 실수란 무엇일까, 대중은 어디까지 장동민에게 너그러워져야 할까, 얼마나 더 심각한 비하가 일어나야 하차가능할까 싶다.

터[12]가 있다면 한국에는 '중식이 밴드'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단 소수자 혐오 가사를 노랫말에 포함했다는 점에 그치지 않는다. "나 게이 친구들 많아(타일러)"라거나 "저 여자 친구 엄청 좋아해요(중식이)"라는 말로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 것까지 그들은 너무도 닮았다.

너무 흔해서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적 무감각은 미국과 한국을 가로질러 가열차게 진행 중이다.[13] 강간은 '유머'가 될 수 없다. 리벤지 포르노[14]는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비루한 청춘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타인의 고통이 '관조'의 대상이어서는 안되는 거다. 이런 당연한 말을 굳이 말해야 하는 것도 닮았다. 록산 게이의 말대로 대중문화가 이 모양이 된 건 '기초가 너무 약해져서' 그렇다.

> 그가 신나게 강간 유머를 하고 있는데 세트장에서 객석의 한 젊은 여성이 소리쳤다. "당신의 그 강간유머는 전혀 웃기지 않아요." 참으로 성숙하신 토쉬는 그때 이렇게 대응했다. "그래요? 만약 저 말씀을 한 분이 지금 당장 여기서 다섯 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면 웃기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만약 여러 명의 남자가 그 여자를 확 덮친다면…. 어찌 될까요? (록산 게이, 2016:166)

---

11) 일간스포츠 2015. 03. 13. [피플is] 장동민, '오발탄' 맞고 뒤주에 갇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9883905&cloc=(검색일: 2016. 04. 20).

12) 그의 데뷔앨범 「고블린 Goblin」에는 213개의 게이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 타일러는 '여러차례 자신이 동성애 혐오자가 아니며 게이 친구들이 많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게이 팬들이 패곳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허락했다며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집단적 무감각일 뿐이다(록산 게이, 2016:160)'

13) '조심스레 말해봅니다만 저는 아마도 여자를 혐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동거녀로써 알콩달콩 잘 살고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좋아하고 누나도 좋아합니다.' (중식이 블로그, 2016. 04. 01. 정의당을 지지해주세요, http://blog.naver.com/scott376/220671076151), (검색일: 2016. 04. 20).

14) 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o·는 '결별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을 뜻한다. 나는 이 단어가 범죄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전적으로 관람하는 남성의 시선에서** '포르노'로 호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이름은 여성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1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토쉬는 이런 자신의 '개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급하기 사과하는 척하긴 했으나 아무 맥락 없이 그 글만 올라간 것은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누군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머, 어쩌다 미국에서 강간이 개그 소재가 되었을까'를 외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미국엔 강간 개그가 있고 한국엔 어린이 성추행 개그와 한부모 가족 비하 개그가 있다. 여성폭력(염산테러)화장품 광고가 있고[15] 강간을 '골뱅이 이벤트'라고 부르는 세계 랭킹급 소라넷을 보유하고 있다. 그 정도 쯤은 웃고 넘길 줄 알아야 쿨한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한 후, 성적착취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남성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는 중이다. 나는 여전히 '몰래카메라를 찍지마세요'라는 메갈리아의 지하철 광고가 어째서 남성혐오인지 알 길이 없다. 남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저항을 기각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다채로웠다. 그중에 으뜸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난의 방향을 여성에게로 돌리는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제 아무리 여성이 '아무리 열심히 피하려 노력해도 표적이 되지 않을 방도는 없다'.

자신의 음악을 묵묵히 해나가는 뮤지션이 누군가의 '자궁냄새' 운운으로 의문의 1패를 당하는 일은 '여성' 뮤지션에게만 일어난다. 후에 자궁냄새 나는 노래는 듣기 싫다했던 뮤지션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자궁냄새 나는 노래'를 부른 뮤지션을 제외한 주변인들에게(만) 사과했다. 사과에서 제외되는 일도 '여성'에게만 일어난다.[16] 자기 돈 내고 극장

15) 2016년 1월 이자녹스 골드세럼 광고. 광고는 어두운 집에서 이민정에게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온다. 아래는 그 남자가 하는 말의 일부다. "지금 이민정씨를 누군가가 노리고 있어요. 좀 들어봐요. 당신한테 가서 얼굴을 막 어떻게 하겠대요. (어떻게요?) 당황하셨어요? 잘 들어봐요. 지난번에 그 동창회 간적 있죠? 거기서 막 동안이라고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그랬죠?" 이자녹스 사과문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 01. 11. '협박 범죄 광고' 이자녹스의 두루뭉술한 사과문(전문),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11/story_n_8952248.html (검색일 2016. 04. 20).

16) 중앙일보 2016. 03. 18. 오지은, 윤성현 '자궁냄새' 발언 언급에 "의문의 1패", http://news.joins.com/article/19746441(검색일 2016. 04. 20), 노컷뉴스 2016. 03. 23. '자궁냄새' 여혐 발언 윤성현 사과에 정작 여성은 없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66878(검색일 2016. 04. 20).

을 찾아 연극계를 먹여 살리면서도 모 연극 제작사 대표로부터 연극계 작품의 질을 떨어뜨린 주범으로 지목되는 일도 20-30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컬럼리스트 듀나의 말대로 '작품의 질이 떨어져도 이들 탓이고, 작품 폭이 좁아져도 이들 탓'이며, '심지어 한 작품을 여러 번 봐도 회전문 관객이라며 멸시의 대상'이 되는데,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다만 '여성'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20-30대 여성이 떨어뜨려놓은 연극의 질을 회복하고자 고품격 사회극을 제작한 이대표님의 역작은 '품격 있는 남성' 관객들을 불러 모으지 못한 것 같다.[17] 자궁냄새 발언에 대한 윤상현의 사과가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사과는 20-30여성들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예매 관객의 90%이상을 차지했던 20-30대 여성관객이 예매를 취소하고 '#보도지침을 보지않겠습니다'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지만 사과는 이들을 제외한 다른 모두에게로 돌아갔다.[18]

왜 여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을까. 그건 미안하지 않아서다. 왜 미안하지 않을까? 그건 하찮아서 그렇다. 그들은 아니라고 할테고 '나 여자친구 좋아해요'라는 말로 반박하려 할테지만, 여성-인권을 '배겟머리송사'로 위임된 권리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19] 여성의 고통은 사소해진다. 의문의 1패를 당하고도 사과 받지 못한 홍대여신의 말대로 "깜둥이치곤 머리

17) 엔터미디어, 2016. 03. 27. 아직도 2030세대 여성 관객들이 호구로 보이는가, http://www.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5330(검색일 2016. 04. 20). 국민일보 2016. 04. 04. 관객의 소중함 절실히 깨달은 연극 '보도지침'을 이제 용서해 주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04525&code=61171111&sid1=cul(검색일 2016. 04. 20)

18) 이대표는 '연출, 작가, 배우들, 스태프들, 기획 홍보팀 식구들, 많은 동종업계 관계자분들, 작품에 혼신을 다하는 많은 제작자 여러분들'을 줄줄히 언급하며 사과했지만, 결국 -그가 모욕했고 그의 말에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한 -20-30여성을 사과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2016. 04. 22, "지금 대체 누구한테 뭐가 미안한 건데", http://www.hani.co.kr/ arti/culture/entertainment/740938.html(검색일 2016. 04. 26)

19)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지만 여자들은 베갯머리송사라는 진짜 힘을 갖고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성적 매력을 사용해서 남자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베갯머리 송사는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닌 여자는 스스로 아무 힘이 없고, 딴 사람의 힘을 졸라서 얻어낼 방법을 알고있는 것 뿐입니다(아디치에, 2016:48)."

가 좋네, 황인종치곤 운동잘하네"라고 말해놓고 "왜 칭찬했잖아 그런 뜻 아니야"라고 말하는 건 참 옳지 않지만, 황인종이 받은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구길 생각은 추호도 없는 거다. 그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일보다 매우/훨씬/더/곱절은 창피한 일이고, 이런 일에 딴지 거는 일은 '꼴페미'와 '메갈충'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말이다.

페미니즘 페티시와 꼴페미

한 인터넷 서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서적 판매량은 2011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이런 변화는 페미니즘이 필요한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알아가기로 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 한편에서는 여성학 분야 연도별 판매추이 그래프가 올라온 엠엘비파크(MLBPARK) 게시판에는 한국식 페미니즘에 대한 우려가 댓글로 달렸다.[20] 비단 엠엘비파크만이 아니라 페미니즘이 이상해질까봐 걱정하거나, 페미니즘이 이상해졌다고 걱정하거나, 페미니즘이 이상해질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있었다. 게이가 들려주는 미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비난받는 방식과 아디치에가 말해주는 나이지리아에서 페미니스트가 배제되는 방식, 한국에서 페미니스트가 삭제되는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어

20) "한국식 페미니즘은 페미나치에 가깝습니다" (Egoist.2016-02-27 20:26IP: 125.180.*.76),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이면 좋은데, 남혐 확산이 아닌가 싶어서" (사쳴 2016-02-27 20:24IP: 175.192.*.95), "어떤 책이 팔리는지가 중요하죠. 우리나라 페미는 이상하게 변질된 곳이라서..."(스렉코비치2016-02-27 20:24IP: 58.233.*.163), "여성학이란 분야의 책 판매가.. 메갈 같은데 영향을 줬을까요?.. 인터넷상의 결과들은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거 같은데." (zzzorp2016-02-27 20:22IP: 124.50.*.12),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섹스2016-02-27 20:20IP: 182.231.*.5ㅌ 3)
댓글 출처: 엠엘비파크 게시판, 2016. 02. 27. 게시글 "페미니즘 책 판매량 변화 jpg.,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4491870&select=title&query=%ED%8E%98%EB%AF%B8&user=&reply=(검색일 2016. 04. 20)

디에서건 페미니스트 존재를 지우기 위해 안달들이다.

애쓰시는 분들껜 미안하지만, 페미니스트는 지워지지 않는다. 페미니즘은 삭제되는 성질이 없다. 페미니즘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동할 수 있어도 삭제될 수는 없다. 페미니스트도 그렇다. 페미니스트는 (알파고가 아니라) '사람'이어서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며, 빈틈 사이로 타인을 초대하면서 움직여 간다. 비루함은 내 존재의 모자람을 입증하기 위해 내뱉은 말이 아니라 오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용기 내어 내뱉는 성찰의 흔적이고, 숨을 멈춘 고형물이 되기보다는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미 생명인데 생명이 되는 일에 선언씩이야 필요할까 싶지만, 페미니스트는 마치 고형물인 것처럼 익숙하게 분할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선언은 왕왕 필요해진다. 페미니스트 스스로 완벽한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본주의 페미니즘'라는 말이 붙을 만큼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는 모습은 페미니즘을 물화시키는 사회적 영향력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페미니즘을 분할하는 일에 동참중인 거다. 페미니스트 고체화에 동참중인 페미니스트들은 고민한다. 이런 나도 페미니스트일까? 이런 나, 페미니스트여도 될까?

> '나는 내 음악 선택이 부끄럽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색이다, 나는 『보그』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읽는다, 나는 다리털을 깎는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남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물론 그래서는 안되지만) 덜 떨어진 남자들의 헛소리는 참아주기도 한다, 나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고 호화로운 결혼식도 좋아한다, 나는 어떤 집안일은 남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특히 잔디깎기, 벌레죽이기, 쓰레기 버리기 같은 것들을 남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주 '느끼는 척'한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다' (록산 게이, 2016: 371-373)

태평양 건너에 사는 나도 게이와 같은 고민에 빠진다. 여성혐오 가사를 쓰고도 여혐인줄 모르는 중식이밴드 노래를 듣는 것은 페미니스트로서

못할 짓일까, 여성을 인간으로 보는 훈련이 덜된 성시경의 노래는 왜 여전히 내게 애절한가, 게이가 공상과학영화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영화 「헬프(2011, 테이트 테일러 감독)」를 나는 어쩜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재미나게 볼 수가 있나, 왜 난 내 뱃살과 주름과 흰 머리가 미/운/가.

그러다가 정신줄을 다시 붙잡는다. 페미니즘은 정언명령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고 나는 '살아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준다. 나는 모자란 페미니스트[21]이고 그런 모자람이 페미니즘을 살아있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모자란 내가 다행이라고 다독인다. 그건 나를 안심시키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을 프레임에 가두고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들려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기도 하다.

록산 게이는 책의 마지막에 '페미니스트가 아예 아닌 것보다는 나쁜 페미니스트 bad feminist)가 되는 편이 낫다'고 적는다. 아마 게이도 페미니스트 프레임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페미니스트들을 붙잡고 싶었을 거다. 그리고 나는 이 메시지가 나쁜 페미니스트와 좋은 페미니스트를 구분하고 옳은 페미니즘과 옳지 않은 페미니즘을 구분하는 일에 에너지를 넘치게 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 일은 '헛짓거리'라고 전하는 게이 특유의 반어법으로 이해한다. '나 꼴페미 맞거든요, 그니까 이제 신경끄시고 너 성찰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이쯤이면 됐다. 개념녀와 김치녀를 구분하는 것처럼 진짜 페미니즘과 가짜 페미니즘을 구분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무튼, 페미니스트도/페미니스트는 중식이밴드 노래를 들어도 괜찮다.

#그나저나 중식이밴드가 '리벤지포르노' 근절 운동에 동참할 방법은 어디 없을까?

---

21) '모자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 졸고 "모자란 페미니스트가 얼결에 찾은 정주지에 대하여" 부분에서 다루었다. (『그런 페미니즘은 없다』, 그린비, 2016 발간예정)